

Vol.122 2020. Spring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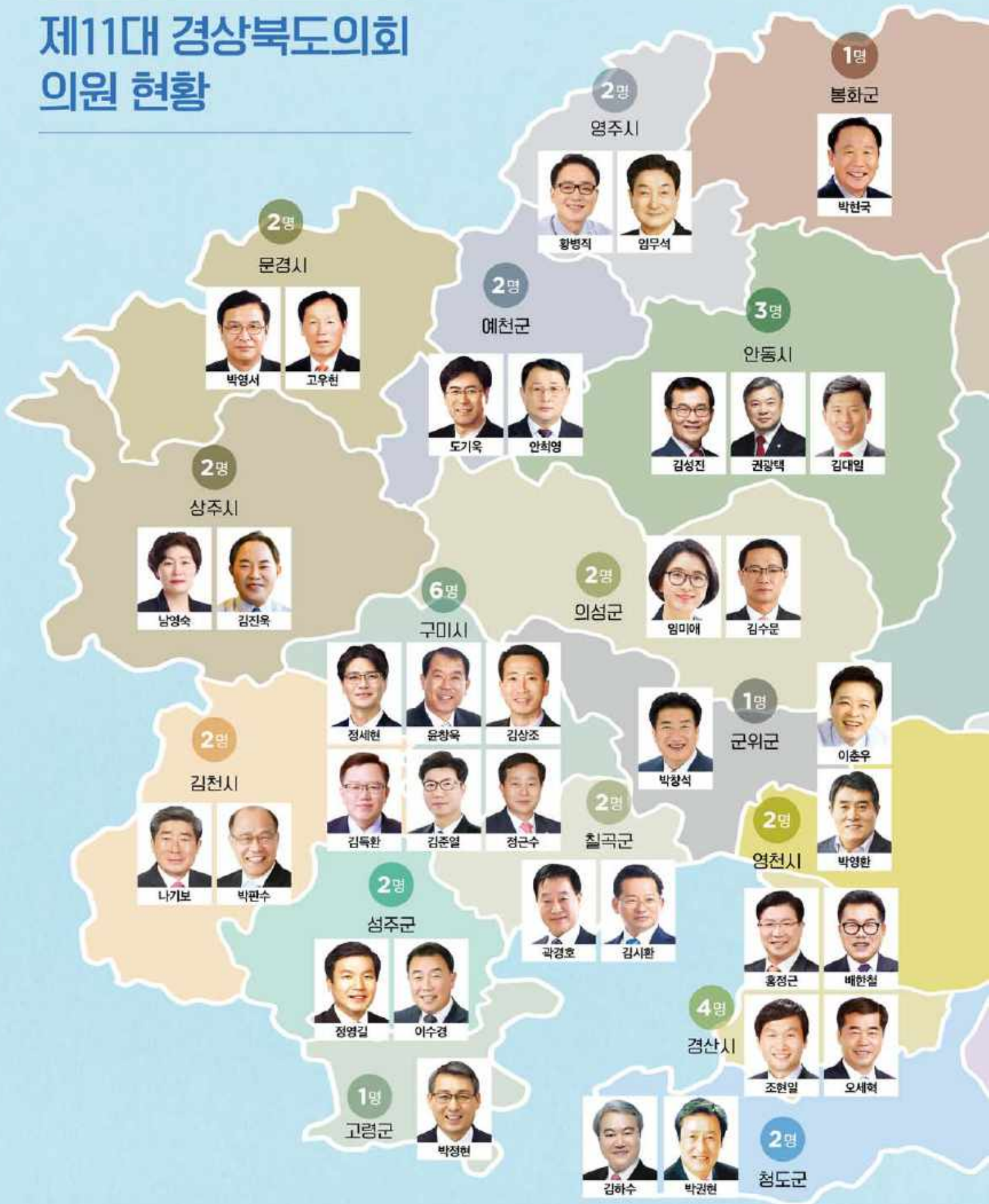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경상북도 의회소식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현황





6명 비례대표

미래통합당
 박채아 윤승오 이선희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박대춘

민생당
 박미경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민생당

무소속
 무소속

2020 경북도의회
첫 소식을 전합니다

결에 다가온 봄
경북이 더욱 따스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CONTENTS

VOL.122

2020. SPRING



08	의원톡톡(Talk-Talk)
14	위원회 활동
24	당신께 묻습니다
30	의정소식
34	내가 생각하는
39	5분 발언
44	전지적 관찰 시점
49	처리의안
54	Vlog On
60	의회 아카이브
68	의회 한 토막
69	쉼터
70	우리 함께
71	의정안내
	독자 엽서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발행인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민민기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

발행일 2020년 5월

주 소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 화 054-880-5144

기획·디자인·사진·제작 | 위스트리파크



경상북도 의회 홈페이지 접속 후 의회소식지 신청

구독신청 : council.gb.go.kr

※ 구독 취소시 경상북도의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연락(054-880-5144)



하루라도 빨리 모든 도민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물러나고 포근한 봄의 기운이 만연한 5월의 시작점입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두 번째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라는 슬로건을 도 의정에 녹이기 위한 지난 노력들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 번 처음 가졌던 각오를 다져봅니다.

그간 신문 형태로 발행해오던 의회 소식지를 책자 형태의 계간지로 새롭게 개편 발간하여,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도민들을 대표해 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의정활동에 반영해 왔는지, 그리고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유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소비감소에 따른 경기침체까지 겹쳐 도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진단·치료 등 광역 의료체계 개선·보완을 위한 감염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도민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꽃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 바다 복판 용솨음치는 곳
바람결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이육사 시인 <1904~1944>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시인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청포도', '절정', '광야' 등의 작품을 저술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주로 저항적 주제와 실형의식, 비애,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노래했다.



행정과 민생 현장을
모두 경험한 베테랑

남진복 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울릉/미래통합당



울릉도와 독도의 사나이

안녕하십니까?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울릉도가 독도를 품고 있어서 저는 항상 민족의 섬인 독도를 포함해 저를 소개합니다. 저로 말하자면 행정과 민생 현장을 모두 경험한 지방의회의 전문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의 공무원노동조합을 태동시킨 장본인이자, 초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직 내부와 행정업무에 워낙 밝다 보니 후배 공무원들이 좀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행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도 저입니다. 의회의 본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인데, 저는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혈기만으로 부딪치다

저는 올바른 지방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 48세의 나이에 공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때가 2005년도 말인데, 당시 저의 시선에 지방의회의 모습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개혁의 선봉장이 되고자 2006년 지방선거에 뛰어들었으나 현실정치의 벽은 높았습니다. 혈기만 앞세운 도전으로 내리 3번이나 낙선을 거듭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3전 4기 끝에 도의원에 당선되어 지금 재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불편한 사람이 되다

제가 바라는 의원상은 민생현장의 소리는 두렵게 들리지만 집행부로부터 받는 욕은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데 있어 집행부의 눈치 따위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집행부가 의원을 불편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기능에 충실하다는 방증이며, 궁극적으로는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귀결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권장해야 할 덕목입니다. 모름지기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끔씩 '욕먹어도 좋다'라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공익을 위해서라면 집행부로부터 언제든지 불편한 사람이 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

인생의 3막 경북에 바치다

박판수 의원

| 문화환경위원회/
김천/미래통합당

경북과 함께하는 삶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김천 도의원 박판수입니다. 저는 흔히 인생의 3막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청소년 시절이 1막, 고향을 떠나 성공을 추구했던 2막, 그리고 마침내 일신영달이 아닌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의원이 된 제3막입니다. 저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북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관리·홍보하고 세계적 문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저더러 바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정작하게 행동하고 개인보다는 지역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 욕심을 가지고 행동해도 괜찮지 않느냐 묻지만,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으로서, 그것은 정도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는 동안 여러 번의 낙선을 겪으며, 어렵게 도의원 자리에 오르면서도 민들의 인정을 받는 일이 쉬운 게 아니란 것을 느꼈으며,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답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경북의 얼을 지켜나가다

저는 얼마 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품은 지역입니다. 작은 나무 하나에도 무수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숨어 있는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우리 고장을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현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산림생태 및 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고성산 둘레길 조성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의 도시, 경상북도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잘 뵈었다는 말을 듣는 의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원으로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





늘 주민 곁에 있는 의원 김성진 의원

| 농수산위원회/
안동/미래통합당

도민과 농가를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속의 김성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업무에는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활의 근간입니다.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일하는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농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도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솔직하고 바르게

어떤 의원이 훌륭한 의원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답이 명확히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각자 다르고 또 바람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들어 드리는 게 도의원이 할 일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 지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이해시킨 후에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의원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은 도민들이 선출한 사람입니다.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발언은 도민들의 뜻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국토를 지켜나가는 의원

현재 저는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독도는 경상북도의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를 하기보다 담당실무자를 찾아갑니다. 직접 행동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도 수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왜곡,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해서는 즉각적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독도수호대책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 비판점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도 문제의 범위를 동해안이 아닌, 경상북도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책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항상 권위보다는 친근함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각하고 직접 부딪친다 이재도 의원

| 교육위원회/
포항/더불어민주당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갑습니다. 포항 남구에 지역구를 둔 이재도 의원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30년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중 감사실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으로 의회에서 분야별 맞춤 예산이나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일했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지역구를 위해 제가 직접 일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을 떠난 의원

많은 의원이 자신의 정당에 무게를 두고 생활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편입니다. 저는 당의 논리를 떠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위의 다른 의원들도 '이 의원은 사원지원하고, 지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십니다. 경북도의회는 다양한 소속을 가지는 의원들이 존재하는 의회이기에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고 발전할 여지도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올바르게 협업하고 토론하며 경북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미래다

예결위 활동 중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의결했을 때, 부결될 뻔했던 사항을 노력을 통해 살려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의 예산이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경상북도의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까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 경상북도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의 경상북도 도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의지와 간절함을
바탕으로

홍정근 의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산/미래통합당

믿음으로 선출된 사람

저는 경산시에서 33년의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어느덧 의원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주변으로부터 의원 생활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8년 동안 의원 배출이 없었던 지역임에도 당선되어 의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험 덕분에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 행정추진 내용을 다른 의원들보다 더 잘 알 수 있었고, 이런 장점을 발휘해 공무원과 협업하는 등 능숙한 업무처리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을 향한 이해와 애정

일부 의원들은 그냥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출마할 때,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관계를 맺을 건지 자문자답하며 열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그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는 주민께 봉사하는 마음과 도민을 향한 애정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제가 하는 일을 신뢰하겠습니까?

보람찬 순간들

의원 일은 고난과 보람이 교차하는 직업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꼽는 가장 잘한 일은 '일본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을 때입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할머니들은 여태껏 말도 못 하고 속으로 앓으시면서 아픈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위 조례안으로 할머니들께 100만원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픔을 도민 모두가 함께 나누길 바랐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민 모두 의회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다 남용대 의원

| 건설소방위원회/
울진/미래통합당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도의원 남용대입니다.

저는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일던 2009년 12월 말 36년간 근무하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퇴임하고 고향 울진에 내려와 뜻 있는 분들과 시민단체를 결성, 재능기부도 하고 그동안 소원했던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의 선거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 시 원자력으로부터 원활한 대피와 최단거리 물류이동을 통한 물류비 절감, 강원 내륙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경북 관광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울진과 태백을 잇는 대피도로 건설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

불신은 원칙이 무너지면서 온다고 합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접한 '셀프리더십'이라는 자기관리 기법을 터득하면서 '내가 바로 설 수 있어야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때론 칭찬도 하며 내가 아닌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약자들을 위한 불공정, 불평등에 대해 이것만은 꼭 해결하고 가리라는 결심을 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외치며 항상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권력은 폭력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도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권한의 위임을 무겁게 하고 민생을 위한 올곧음을 절대 잃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남고 싶습니다.



시대를 이끌어 갈 사람

초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암담한 작금의 현실과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경북의 미래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도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두렵기만 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북도민들의 시대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초극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은 상상을 초월한 해결 능력을 보여 왔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남에게 소유당하지 않으려는 '기상'과 죽음의 절박함 앞에서도 절대 삶을 천박하게 하지 않으려는 '기품'은 우리의 민족 혼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겼고 IMF를 넘긴 위대한 민족! 누가 우릴 보고 인승무레기라 할까요? 투명성을 통한 신뢰 구축! 화해와 결속, 단결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보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저소득 근로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여러분들!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제314회 임시회 회기를 연기하고 일정을 단축하는 협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폐회 중 급하게 개최된 것으로, 위원들 모두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으며, 불안감에 휩싸인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빠른 예방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12일로 계획되어 있는 제314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5일로 축소되었고, 도정질문 및 상임위별 현장 확인도 취소되었습니다. 집행부 회의의 참석대상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실·국장을 제외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3월 26일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 및 대책 등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발의로 제안했으며, 이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일로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합니다. 감염병특위는 감염병 관련 예방과 확산방지, 실태파악, 대정부건의안·결의안 채택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심사와 관련해 박용선 위원장은 "도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도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 소통·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기획경제위원회 •

2020년 소관 실국 업무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월 3일과 4일 양일간 상임위를 열어,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실국의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는 등 민생경제 현안과 실국별 2020년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314회 임시회가 열린 3월 26일에는 소관 실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의안,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되어 그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억원을 증액하고, 3억원을 감액해 수정 의결했으며,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불안은 멀리, 행복은 가까이,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꾸준한 소통협력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먼저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월 30일과 2월 5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2020년도 업무 보고를 받으며, 도민 행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아가 당면 현안에 대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분야별 각종 사업들이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 및 대안을 집행부와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제314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상

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뒤,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조례안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을 긴급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며,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또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예산안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세출 예산은 3조 7,99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7억원이 증액했습니다.

• 문화환경위원회 •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방향 제시!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인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10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경기장 공사현장'과 하반기 개관 예정인 '한복진흥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제10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경기장 공사현장을 찾아 노후화된 경기장을 개보수하여 대회를 진행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다른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복진흥원에서는 고부가가치 한복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북만의 특색 있는 전시체험 콘텐츠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에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코로나19 종식 후의 지역경제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세출예산감액으로 정상적인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5개 사업, 1억 5,900만원을 원상복구하고, 장기투자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1개 사업,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 농수산위원회 •



농어촌 코로나19 위기극복 프로젝트 가동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6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내 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지켜내면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도내 농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모임 취소와 각급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포함한 소비촉진행사를 전개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대출이자를 기금으로 보전하고 추가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위원회는 '공직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는데, 지난해 정부는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더이상 주장하지 않

겠다고 금년 5월부터 공직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직직불제로의 성급한 전환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협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위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직불제의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인이 경영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직직불제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예산 확보, 수용 가능한 지급단가 체계 마련, 쌀값 지지 및 수급 조절 대책,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 수령 방지, 농지법 개정 등의 당면한 과제의 우선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이수경 위원장은 "코로나19, 공직직불제 등 우리 농어촌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고 전제하고, "농어촌 코로나19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가동해 300만 도민과 함께 고난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소방위원회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6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남용대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상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승직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

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3건의 조례도 의결하였습니다.

김수문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긴급 대응 추경편성인 만큼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도민의 일상이 무너져 버린 지금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교육위원회 •



2020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첫 상임위원회 개최

지난 1월 30일, 교육위원회는 제313회 임시회를 맞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교육 전반에 대한 현황과 당면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교육정책의 다양하고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한,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학생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신경 쓰는 만큼 학교의 방역·위생·학습지원, 교육과정 운영, 돌봄 등 경북교육청의 신학기 개학 준비에 따른 코로나19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박경호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된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감염병 예방대책과 안전한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수정의결 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수정의결 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문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회계 2건, 65억 6,450만원을 삭감하고, 19건, 65억 6,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10조 2,420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6,355억원보다 6,065억원(6.29%)이 증액되었으며,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취약계층 긴급지원,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예결특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에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이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출 구조조정된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했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나기보 위원장은 도의 재정 상황이 시군보다 열악한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민생을 살리는 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정근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대구경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선후배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한편,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 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구성되었습니다.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

경북도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코로나19 사태 극복 위한 선제적·공격적 대응체계 가동」

경상북도의회는 3월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도내 코로나19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과 지역사회 위기감을 인식해 전국 최초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 특위는 남영숙 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료 시점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선제적·공격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이며, 중장기

적 경상북도 감염병 관리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필두로 김시환 의원, 김희수 의원, 도기욱 의원, 박정현 의원, 오세혁 의원, 임무석 의원, 정세현 의원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에 감염병 대책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추진 체계를 한 채널로 일원화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예방 및 위기를 더욱 속도감 있고, 전문성 있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박태춘 의원

| 교육위원회/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Q 조례 발의 시 무엇을 중점으로 두는지?

A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들의 처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다른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소위 사회적 약자층이 갖는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중에서도 나는 학생들의 복지에 특히 신경 쓰는 편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 조례안」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모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

Q 특별히 학생들을 신경 쓰게 된 계기가 있는지?

A 의원을 하기 전에는 체육 관련 일을 했다. 심판 활동도 30년 가량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친구들이라 함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뿌듯했다. 어려운 상황의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더욱 그들에게 애착이 생겼다. 최근에는 「보호 종료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하고 5분 발언도 진행했다. 이 학생들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모두를 보살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교육위원회 위원인 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

A 항상 모두와 함께하는 삶을 꿈꾼다. 의회에 들어와서도 자원 봉사, 후원단체 활동, 지역사회 기부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삶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이다. 앞으로도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도민들의 생활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의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경북이 웃음을 되찾길 바란다. 🍀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지를 실현하다 김상조 의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미래통합당

Q 이번 발의 조례안은 어떤 것인가?

A 「대학생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애인·임산부·노약자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조례안」이다. 점점 상향 평준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대학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가는 때에, 제 주변을 보면 요즘은 빛이 없는 대학생들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20대 대학생에게 등록금은 잠깐의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자 대학생 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교통약자 편의시설 또한 균등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장애인이라고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최근에는 「장애인 관광 지원에 대한 조례안」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다.

Q 복지에 유난히 신경 쓰는 이유가 있는가?

A 제가 소속한 위원회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인 것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든다면 사람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가

정을 꾸리고 살면서 그런 점을 많이 느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신의를 중시하고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의원을 하면서 소위 어깨에 힘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원이 가질 본분이 아니라고 본다. 의원직은 항상 낮은 자세로 수십 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리다.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이란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Q 앞으로의 다짐은?

A 요즘 코로나19로 경북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농업종사자, 운수업종사자 등이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돈만 쏟아붓는 복지가 아닌,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균등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대표라기보다는 심부름꾼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도록 다짐하며 살아가겠다. 

경상북도 발전의 초석을 다지다

이종열 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영양/미래통합당

Q 이번 조례안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

A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설명하자면, 그동안 경북을 책임져 왔던 주요 산업들은 침체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반과 초석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미래를 얘기하지만, '우리 경북이 그런 준비를 해두었는가'를 역으로 질문하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창업·벤처기업은 각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핵심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도 경북의 창업지원 정책과 더불어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선도적 스타트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Q 의정활동 중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A 꾸준히 제기해 온 부분 중 하나는 지역구인 영양에 관한 것이다. 영양은 육지 속 섬이라고 불릴 만큼 교통 여건과 인프라

가 열악한 상황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 이전에 지역발전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한다. 도로망 개선, 교육·주거시설 확충 등 지방의 정주 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방 소도시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말 것이다. 그런 부분에 연관되어 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강화 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Q 마지막으로 다짐 한마디?

A 살아오면서 스스로 성장할 좋은 기회들을 많이 접했지만, 정작 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향 영양은 조금씩 쇠퇴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의원이 되고자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다

김진욱 의원

| 건설소방위원회/
상주/미래통합당



Q 이번 조례안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붙이자면?

A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경북의 소규모주택과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했다. 경북은 인구의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빈집들이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원래 살던 주민이 돌아가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가 상속받아 소유하지만, 대부분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들이 노후화하여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안전사고나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러한 빈집에 대한 정비를 근거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주와 실구매자들을 연결하여, 빈집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Q 이번 조례안으로 기대하는 성과는?

A 주택 관련 사항은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빈집 문제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과도 연관될 수 있다. 빈집 철거명

령 시기를 정비계획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서 안전사고·범죄 우려가 클 경우 시급히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군에서 빈집정보를 체계화해 공유하여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치된 주택을 정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계획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경북의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주거생활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Q 의정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A 도의원의 목표는 도민들이 더욱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의원들끼리 소통하고, 때로는 다투는 것도 그 이면에는 도민들을 위한 각각의 열정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겸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경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또, 공감하고 노력할 것이다. 🍎



이웃집 동네 아줌마로 더욱 친근하게 남영숙 의원

| 농수산위원회/
상주/미래통합당

Q 도의원으로서 꼽을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는가?

A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지역특화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지역안전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정질문에서는 도비보조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문제도 제기했다. 5분발언에서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Q 발의하신 여러 조례 중 특별히 애착이 가는 조례가 있으시다면?

A 학생 보건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학습권의 일부로 중요한 교육 의제로 다루어져야 함에 따라 학생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제안했다. 학교 보

건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보건 교사의 배치,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 자신의 몸을 더 소중히 하고 나아가 타인의 몸과 생명도 소중히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Q 끝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A 300만 도민의 운택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도의회, 집행부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의원이라는 정치인 타이틀 보다는 푸근한 이웃집 아줌마이길 좋아하는 저는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도 마다하지 않고 귀담아들도록 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Q 이번에 어떤 조례안을 발의했는가?

A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평소에도 기부금 관련 조례를 준비했었고 이번에 기회가 되어 발의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부금심사 목록을 보면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신다. 그중에는 소액에서부터 거금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할뿐더러,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도 갖춰져 있지 않다. 때문에 기부자 중 일부는 “괜히 기부했다, 후회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기부라는 게 좋은 마음에서 선행되는 거라지만, 받는 이들도 그들에 대한 예우를 보여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부명단을 만들어 기부자들이 언제든지 자랑스럽게 자신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부문화를 독려하고, 기부자에 대한 이익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Q 또 다른 것이 있는가?

A 아무래도 젊은 여성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 여성들에 대한 조례안도 많이 생각했다. 「공중화장실 등 안전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한 적이 있다. 여성들에게

공중화장실은 공포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항상 불법촬영장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미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에 상당히 지쳐 있다. 공공시설에서 그런 공포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며,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다.

Q 기억에 남는 일을 꼽자면?

A 간혹 명절이나 기념일에 위문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은 동네에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는데, 규모가 너무 작은 곳이라 목사님은 물론 주위 주민들까지 놀란 일이 있었다. 일회성으로 그치고 싶지 않아 후원자분과 함께 찾아가 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부분을 함께 공감하고 해결하고 있다. 특히, “시설 아이들이 사춘기라 예민한데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목사님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뿌듯했다. 그날을 계기로 다른 후원자분을 소개해주는 등 많은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아마 그 일이 의원 일을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고 기억에 남는 일이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감을 줬다는 사실 덕분에 의원이란 직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살기 좋은
세상의 첫걸음은
감사를 표하는 것
박채아 의원

| 문화환경위원회/
비례대표/미래통합당



의정소식



01 2020년 신년교례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1월 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장경식 의장과 도의원을 비롯하여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박건찬 경북경찰청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경식 도의회 의장의 신년인사와 주요 내빈 축사에 이어 축하 시루떡 자르기와 신년하례,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되었다.



02 경북도의회 상주 중앙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경상북도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일 상주 중앙시장에서 민인기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60여명과 상주지역 김영선, 김진욱, 남영숙 도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상주지역 김영선, 김진욱, 남영숙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60여명은 삼삼오오로 나눠 제수용품과 과일을 비롯하여 설 선물 등을 구입하며 풍성한 설 명절의 정을 나누었다.



03 2020년 새해 첫 임시회 열어

경상북도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제313회)를 개회하여 2020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종열 의원의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촉구, 남진복 의원의 울릉군 환안 관련, 김대일 의원의 경북도청신도시 안동-예천 행정통합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되었다.



04 정책연구위원회 첫 임시총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월 30일 새해 첫 임시총회를 열고 2020년 처음 시행되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기본계획과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의원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연구용역의 추진주체는 의원 연구단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된다.

의정소식



05 부의장에 방유봉 의원 선출

경상북도의회는 2월 5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방유봉 의원을 제2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번에 선출된 제2부의장직은 김봉교 전 부의장이 1월 13일 사직함에 따라 신임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부의장 선출은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3선 의원이자 울진 출신인 방유봉 의원이 투표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06 경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2월 5일 14시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 위촉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그리고 제안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경상북도의회가 발주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07 코로나19 종합상황실 찾아 확산방지 대책 논의

경상북도의회는 2월 20일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장경식 의장과 방유봉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처상황 및 향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9일 도내에서 최초 확인된 후,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이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렸다.



08 힘내라 대구경북! 전국시도의회 성금품 속속 담지

경상북도의회는 3월 17일까지 국내외 6개 지방의회에서 총 3억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받아 도내에 지원했다. 먼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난 2일, 1천만원 상당의 마스크 6,800매를 전해주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도내 5개 시군에 전달했다. 이어 2월 말 장경식 의장이 서울시의회에 지원 요청한 건을 서울시장이 적극 수용한 결과 3월 3일 2억원 상당의 마스크 96,600매를 지원받았다.

의정소식



09 경북도의회 초우회, 코로나19 종합상황실 근무자 격려

경상북도의회 초우회(초선의원 모임, 회장 박판수)는 3월 19일 '경상북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우회는 '초선 도의원'으로서의 뜨거운 열정을 모아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말고 더 열심히 뛰어 보자'는 슬로건으로, 경북도의회 초선 도의원 27명이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구성한 의정활동 단체이다.



1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는 3월 19일 '경상북도의회 및 경상북도 합동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제정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밝혔다. 이날 언론브리핑에는 장경식 의장, 박용선 운영위원장,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300만 도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11 경북도의회, 中 라오닝성에서 보내온 마스크 등 경상북도에 전달

경상북도의회는 3월 20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국 라오닝성인민대표대회에서 보내온 구호물품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하여 2019년 '라오닝성인대'와의 교류협력의향서 체결식에 참가한 배한철 부의장과 교육위원회 소속의 고우현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이 참석하였으며,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과 이종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사무처장도 함께했다.



12 경북도의회 日 정부 도 넘은 역사왜곡 강력 규탄

경상북도의회는 3월 24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등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도 넘은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경식 의장은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을 유발시키는 일본의 책략을 정확히 간파해 논리적인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정소식



13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14회 임시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314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책 추경예산안과 함께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인 33만 5천여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소상공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14 코로나19 피해 극복 성금 3천만원 기탁

경상북도의회는 제314회 임시회 개최일인 3월 26일,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의원들이 마련한 성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 비회기 중 의원들 간 의견을 미리 모아 제314회 임시회 개최 첫날에 전달식을 하게 되었다.



66

인생은 길고, 도전은 끝이 없다

99

박차양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경주/무소속



교복을 입고 양갈래 머리를 땀은 채 공무원이 되었다. 그 후 국장으로 퇴임하기까지 40년을 경주의 발전을 위해 살았다. 명예 퇴임을 결정하기 전 크게는 경주를 위해 작게는 나처럼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았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있어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다 내가 공무원 시절 겪은 어려움이 떠올랐다.

퇴근을 미루고 주말을 반납해가며 열심히 계획을 짜고 준비한 큰 프로젝트가 시의회의 예산 의결과정을 넘지 못하거나 도에서 예산을 받지 못해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서 집행부로서 참으로 좌절감을 느꼈었다. 그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통로 역할을 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켜내는 도의원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명함을 나눠드리고 빗속에서 인사하며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찾아가며 경선을 거쳐 감사하게도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문화의 수도인 경주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나로서, 경북 관광문화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경북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고심하던 나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게 됐다. 공을 들여 만든 이 조례는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라는 이름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등 경북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크고 작은 조례안들을 발의했다.

주민의 대표라는 도의원으로서 가지는 중압감이 항상 따르지만, 스스로를 믿고 도민을 위한 걸음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

66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또 특별하게

99

정세현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구미/더불어민주당



매 순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면서 나름 인생을 잘 살아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마음은 자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많은 일을 하고 경험을 했지만, 나 자신보다 도만을 먼저 배려하고 행동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많이 고민하게 된다. 나는 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 구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해 구미대학교에서 생활영어를 가르쳤다. 후에 학원을 3개까지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너무 바빠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였다. 16년 전 열린우리당 시절 구미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이어진 민주당과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의원이 되고 교육위원회에 자리 잡아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3개의 조례를 발의했다. 덕분에 지난해 우수의정대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체찍질일 것이다. 경북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도 나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민원일지를 작성하며 매일 처리한 민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무사히 해결된 민원도 있고, 다소 복잡한 절차를 가졌던 것도, 원활히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다. 아무래도 의원이란 다른 직업보다 남다른 성취감을 가지는 직업이란 생각이 들었다. 서로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교류가 느껴질 때, 그것이 내가 의원이 되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오늘도 일지를 덮으며 경북과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가졌던 초심을 다시금 다짐해 본다. 



66

경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99



김시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칠곡/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고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내 고장 경북을 되 살리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경북의 문제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차츰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이야기했다. 경제는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고, 인구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모든 지역이 힘들겠지만, 경북은 그것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한때 경북은 50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270만으로 줄어들었다.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빠져나간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물으면 답은 간단하다. 모든 산업을 비롯해 대다수의 기반 시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경북에게 필요한 것은 교통의 편리다. 칠곡군 북삼역에 고속철도를 신설한다면 구미와 대구 인근으로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칠곡군과 구미, 대구가 모여서 이제는 거대한 메가시티 형태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국철과 KTX가 교차하는 북삼 부근이다. 이곳은 물류와 인구 이동의 중심지이며, 신공항 유치와도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경북의 각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가, 인구 유입의 기초가 되는 신속성과 편리함에는 교통 우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경북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훌륭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지역 인구만으로 경제발전을 논하는 시기는 지났다. 올릉도가 그렇다. 올릉도의 인구는 채 1만이 되지 않지만, 그곳에 방문하는 인구는 그에 30~40배에 육박한다. 그 유동인구가 올릉도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철도와 항공을 통해 경북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주고 더욱 매력 있는 도시로 가꾸는 것이 지역과 경북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박창석 의원 농수산위원회/군위/미래통합당

66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99

내 고향 군위를 생각하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나는 군
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성인이 되어 사업을 하고자
서울을 비롯한 각지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발전하
는 도시와 활발한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멋졌다. 25년의 세
월이 지나서 돌아온 군위는 아무런 변함도 없었다. 대구라는 도
시에 근접한 지역이지만 그런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내가
떠났을 적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변함없는 고향의 모
습에 반가움과 안쓰러움이 공존했다. 그래서 내 고향을 직접 바
꿔보고자 도의원이 되었다.

나는 농사를 국가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식량 전쟁에
대비해야 할 만큼 농업은 중요한 산업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농
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농부인 아
버지를 따라 자라온 자식이 성장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고된

생활을 하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에서 농업
인들이 걱정 없이 가업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발
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
후대는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농업을 더 귀하게 여기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우리 경북이 힘을 모아 옛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화
랑정신과 새마을정신, 호국정신을 계승해 다른 지역이 본받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
다. 또한, 그러기 위해선 경북의 미래를 짊어질 도민들과 그들
이 뽑은 우리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다투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도민을 이끄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모든 도의원이 끊임없
이 노력하고 있으니, 도민들도 끝까지 믿어주길 바란다. ☎

김득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구미/더불어민주당

66

열정과 봉사로 일구어나가는 경북

99



때때로 의원인 나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다. 의회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나를 위한 사무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이 무겁게 다가온다. 나는 늘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쉽게 지나치는 성격이 되지 못했고, 내가 살아온 경북을 좋게 바꾸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그러니 의원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우리 경북이 지금보다 더 잘 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나에게 물어본다. 나는 그 질문에 도민 의견의 적극반영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대책이라고 답하고 싶다. 내가 속한 구미는 공단 지역으로 기업도 많고, 포항과 함께 경북 산업 전반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

다. 현재는 핵심 산업의 이전으로 침체에 있지만 이런 침체를 해결하는 것이 의원인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발전하는 경북을 위해 나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고 한다. 외국인들이 경북을 효율적인 투자처라고 느끼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투자가 활발히 시작되면 경북경제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내 생각과 의지 덕분에 시민들도 구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고 있다. 1997년 구미는 IMF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활황을 누렸다. 그러나 차츰 변하는 시대에 쉽사리 적응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구미는 여전히 청년층의 비율도 높고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내가 할 일은 온고지신의 자세로 구미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지금 경북의 상황이 그리 밝지는 않다. 하지만 신라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구미를 비롯한 경북도의회 의원, 도민 모두가 노력한다면 이 위기를 가뿐히 뛰어넘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직접 들어보는 5분 자유발언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 29.)



 **이종열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영양)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 추진과 이를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촉구

남북 6축 고속도로는 1999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북 7축, 동서 9축 간선도로 중 남북 6축에 해당하는 경북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에 이르는 309.5km 구간으로 총사업비 5조 1,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20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개선 없이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3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송, 영양, 봉화군 등 북부지역 소멸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도로 건설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구 2만 7000명에 불과한 양양군에 고속도로가 놓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균형 발전의 논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경북 북부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은 국가 균형 발전과 신성장 동력 발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강원도와 함께 관련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 6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 29.)


 **남진복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울릉)

울릉도 해상 항로의 수송 안정성 확보 촉구

울릉도는 동해상의 특수한 기상 여건 등으로 연간 100여일 정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시대에 울릉도는 기본이 2박 3일, 여차하면 4박 5일에도 열흘을 넘길 때도 다반사입니다.

지사님께서 해상 교통을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여 1일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고, 특히 운항 손실까지 보전하겠다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림으로써 울릉군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 유치되는 대형 여객선은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규모와 운항 능력에서 현재 운항 중인 대형여객선의 수준을 뛰어넘고, 특히 지역 농수산 특산물과 생필품 등의 화물을 충분히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합니다. 30년 대게인 동 사업이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울릉군과 해운사 간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 우리 도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만간 선령이 만료되는 여객선 항로에는 반드시 수송 안정성을 담보할 만한 중형급 이상의 대체선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소관청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역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도에서도 관계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 29.)


 **김대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안동)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앞서 도청 신도시 및 북부권 산업 발전 전략 마련 촉구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북부권 발전의 필수 기반시설이 될 통합 신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도청 신도시 행정 이원화 및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청 이전으로 공동 발전을 기대하던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북부권 시·군들, 투자자, 소상공인, 신도시 주민 등은 아직도 경상북도청 신도시가 북부권 균형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설익은 정치적 이슈로 인해 도청 신도시 확장 및 북부권 발전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북부권은 또다시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논하기 전에 당초 도청 이전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대형 국책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 계획과 북부권 관광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북부권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 이원화와 구도심 공동화 문제 등 신도시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북부권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 투표를 거친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 5.)



이재도 의원 (교육위원회, 포항)

지방도 929호선(금오~양포 간) 4차로 마무리 촉구

지난 2010년 6월에 착공한 도 지방도 929호선은 현재 국가산단 블루밸리 조성 및 동해안권 개발 및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안 도로를 제외하고는 부산, 울산, 울진, 경주, 포항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내륙 도로입니다.

그러나 2015년에 포항~장기 간 확장 사업이 용역비 등의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구간 중 3분의 2 구간은 4차로로 추진이 되었고 나머지 3분의 1 구간이 아직 2차로로 구간의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블루밸리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와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도 금오~양포 구간은 반드시 4차로로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2+1로 추진하게 된다면 병목 현상 발생으로 도로가 결국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안보상의 문제로 인해 해병대 사령관이 경북에 협조문까지 보낸 상황으로 그동안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좋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군용 차량 이동 시 심각한 교통 체증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해안 해양관광의 관문으로의 역할과 촘촘한 연계 도로망 확보를 위해서는 금오~양포 간 구간도 4차로로,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 5.)



박창석 의원 (농수산위원회, 군위)

통합 공항 이전지 유치 신청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다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지난 1월 21일 실시된 후, 다수 언론에서 의성 비안, 군위 소보 지역 확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군위군민이 이에 불복하고 있다고 비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공항이전법에는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위 후보 찬성 76%, 군위 소보 반대 74%라는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 유치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를 불복이라 하는 것은, 공동 후보자인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둘 중 한 곳만 1등을 해도 공동 후보지를 1등으로 확정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성 비안이 1등을 했으니 군위 소보는 꼴지를 했지만 같이 1등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 투표는 준비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았고 군공항이전법과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 등 서로 충돌된 내용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된 기준을 세워, 투표 후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과 지체 간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자극하는 언론플레이보다 모든 것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치적이거나 힘으로 하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 5.)



박미경 의원 (행정안전부지위원회, 비례)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대상 확대 및 시행 방식 개선 촉구

지난해 6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단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9년 출생아 수 1만 4,700명 중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겨우 0.7%인 100명이고, 예산도 도비 600만원으로 매우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2회 접종을 권장하고, 민간 의료기관에도 2회 접종이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2회 접종을 하면 1명당 약 7만원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3회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로타바이러스는 아동의 80%가 접종하지만,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병의원에 위탁할 경우 1회당 3~4만 원의 시행비를 추가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대상포진 예방 접종 대상은 80세 이상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1만 4,400명이지만, 80세 이상의 경우 접종률이 30~4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 접종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3. 26.)



김상헌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포항)

모든 도민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제안

경상북도는 이번 추경에 재난긴급생활비 2,089억원을 33만 5,375가구에 지급하는 등 총 3,812억원의 민생경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긴급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1~3월까지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선별적 지급 방식은 프리랜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미취업 청년, 학원 강사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 지역이 발생하게 되고,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 민생경제 예산으로 책정된 3,812억원 중 2,700억원을 270만 경북도민 각자에게 1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면, 지금 경상북도가 제시한 방식보다 더 빠르고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과감한 대책이 경북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농민들, 어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당장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도민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판매'와 같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실행을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3. 26.)



배진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주)

감염병 대응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인프라 확충 촉구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감염병 치료를 위한 지역의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절감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2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경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감염병 관련 시설·장비 보강과 함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국비 요청을 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유일한 대학병원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인력과 장비, 규모 등을 갖추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주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입니다. 감염병이 언제든지 유입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도지사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거듭 촉구하며, 전문 감염병 예방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3. 30.)



남영숙 의원 (농수산위원회, 상주)

학생·청소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마련해야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교육부에서는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까지 2주간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감염 비율이 성인에 비해 낮긴 하지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누적 확진자 숫자가 3월 7일 379명에서 29일 현재까지 61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 경북의 19세 이하 미성년자 확진자 수는 39명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육청과 경상북도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경상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에 부서별 업무 협치를 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팀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등은 예산 지원보다 물품 지원으로 하는 것이 학교 안정화 및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정 내에서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초중고 학교에서 보건 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행동에 믿음을 김영선 의원

| 문화환경위원회/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

꾸준히 정도의 길을 걷는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

생활 환경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앞장서다

김영선 의원만큼 세상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저것 호기심을 갖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남달랐던 열정은 인권 단체, 여성 단체,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참여로 이어졌다. 지금은 시민단체 활동으로 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당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석포제련소, 4대강 사업 등의 현안을 토대로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학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본분에 충실히

무슨 일을 하건 근본과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정 철학이다. 의원이 의원답게 행동하고, 자신의 할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김 의원이 말하는 의원의 마음가짐이자 자세다. 흔히 말하는 보수의 중심인 경상북도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도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하는 것이라는 그의 생각처럼 도의회도 안정보다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경상북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보고자 하는 추진력도 의원이 가지는 덕목 중 하나이다. 열심히, 꾸준히 정도를 걸으려는 한 의원으로 기억되는 것. 뜻을 이루기 위해 도민들과 따뜻하게 소통했던 의원. 그것이 김 의원이 바라는 스스로의 모습이다. ☺

“
일하기 좋은
경상북도를 꿈꾸며
”

노동의 가치가 아름다운 경북을 만든다

윤승오 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비례대표/미래통합당

노동자 출신의 일자리 전문가

‘일자리 전문가’ 윤승오 의원
을 보면 꼭 한번씩 하는 말이

다. 20여년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일을 해온 데다, 도의원을 지내면서 근로자 대표로 활동했기에 붙은 별명이라. 덕분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현안들은 윤 의원과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저임금 노동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에 소속된 기간제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하며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빈곤의 경계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존’을 넘어 ‘인간’으로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기반을 닦아나가는 의원으로 동행하고 있다.

소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모든 도민에게 애착을 갖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중
에서도 유독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바로,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 등 사회의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다. 노동조합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고용과 근로에 있어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노동자들을 위해 꾸준히 일해 왔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현실은 어렵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많기에 행정적인 지원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윤 의원은 오늘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



지방정치는 지역에 대한 봉사로 이루어진다

안희영 의원 | 농수산위원회/
예천/미래통합당

“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



농민들의 든든한 지원군

혁신농업 도시 예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희영 의원은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농수산위원회에서 안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의 까다로운 후계농업인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사업의 총량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북도청 신도시 유치라는 성과를 함께 달성한 만큼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생기는 교육 문제는 유치원 조기 개원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결을 마친 상태다. 이어서 신도시 중학교 조기 신설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안 의원은 늘 초심을 떠올리며,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믿고 낮은 자세로 정치에 임하고 있다.

성실하고 겸손한 두박이 도의원

안희영 의원의 별명은 다름 아닌 거북이 의원이다.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드문 별명이 아닐 수 없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도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묵묵히 진행하는 것도 도의원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말한다. 물론, 도의원이 도민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항상 도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안 의원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의원이다. 언제까지 의원 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노력하는 의원, 인간미 있는 의원으로 기억되는 것이 안 의원의 작은 바람이다. 🐢

주민과 함께하는 참된 지역일꾼

박승직 의원 | 건설소방위원회/ 경주/미래통합당

“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

경주에 청춘과 인생을 모두 바치다

박승직 의원의 청년기는 '봉사의 시간'으로 기억된다. 지역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던 박 의원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했고 그를 자연스럽게 정계로 이끌었다. 기초의원 3선을 거쳐 경북도의회 의원이 되기까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굳은 신념 하나로 곳곳이 전진해왔다. 지역의 참된 일꾼으로 쌓아왔던 현장 경험은 의원 활동에서도 빛을 발했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경주 곳곳이 피해를 보았을 때 지방하천 유실 지역 등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고 국회의원과의 논의를 거쳐 SOC 분야를 비롯해 대책이 필요한 곳에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현장의 최전선에서 어려움을 잘 빠르게 알아내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름의 철학으로, 기본과 초심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공직자의 숙명과도 같다. 책임질 누군가가 많은 도의원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박 의원은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청렴결백을 말하지만, 그것은 의원의 당연한 덕목이기 때문에 굳이 지킨다는 말이 무색하다.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주민이 의원에게 바라는 기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소위 욕먹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 또한 주민을 실망하게 한 도의원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박 의원은 말한다.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졌다면 응당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경북의 발전을 논하는 이 순간이 박 의원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최고의 순간이다. 🗣️



생활 정치의 달인

박미경 의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민생당

“

현장에서 문제점과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



우연한 기회

박미경 의원은 우연한 기회에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20대 총선 모 후보를 도우러 캠프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를 계기로 박 의원의 정치 생활이 첫발을 디뎠다. 주변에서 많이들 만류했었고, 박 의원 본인조차도 정치에 전혀 뜻이 있지 않았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정치. 그러나 캠프에서 보고 들은 일들은 박 의원을 각성시켰다. 정치야말로 주민들의 곁에 있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할 방법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이들에게 작은 꿈을, 청년들에게 밝은 앞날을, 노인들에게 편안한 후일을 선물하는 것이 박 의원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

정말 필요한 일을

의원이 되고 2년이 지난 후 박 의원이 느낀 바는 조례 발의 횟수보다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개월 이하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접종에 관한 조례안」 등 아이며 노인이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조례안들을 골라 발의했다. 특히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고충에 더욱 귀를 기울인 박 의원은 무작정 아이 낳기를 권장하기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과 그 부모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며 위 조례안들로 더 살기 좋은 경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짜 정치’를 하자

최근 박 의원이 하는 고민은 ‘진짜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정치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도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짜 정치’는 아닐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나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도의원은 결국 민생현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현장에서 답이 나온다. 박 의원은 자신의 대답을 믿고 곳곳이 걸어가기로 했다. 때로는 평범한 이웃처럼, 다정한 어머니처럼, 평범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평범하기 때문에 비굴 수 있는 의원. 그런 의원이 되는 것이 박 의원의 소망이다. 🌟

의원발의 조례

01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박채아 의원

1. 제정 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 금품의 접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자의 뜻을 기리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부자에게 기부증서 발급 및 특정 장소 또는 경상북도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표창장·감사장 수여, 명예의 전당 설치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02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김대일 의원

1. 개정 이유

- 경상북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의 내실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당초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위촉직 위원에 관한 규정을 동일인이 3개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함. 다만, 도의원, 여성 등을 위촉하는 경우 중복위촉의 예외로 함

03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도기욱 의원

1. 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 3. 2.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지사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함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을 규정함

04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이춘우 의원

1. 개정 이유

- 경상북도 영천경마장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50%를 감면함으로써 말산업을 미래경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한국마사회 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마투표권 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 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05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남진복 의원

1. 개정 이유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관광사업의 투자 지원 규모를 세분화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 보조금의 지원을 다르게 정하여 관광사업 기업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당초 투자금액의 5% 내에서 최고 20억원이던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투자 규모(200억원, 400억원, 800억원, 1,000억원)에 따라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으로 세분화 함

06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김희수 의원

1. 제정 이유

-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과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 우수기술 지정·등록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
- 우수기술개발자가 관련 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고 제한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신기술·우수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07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 박용선 의원

1. 제정 이유

-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나라꽃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궁화 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정비·관리, 무궁화 식재, 무궁화 교육 등 무궁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등에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08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김영선 의원

1. 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주민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대기·물·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 및 공개할 수 있음

09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춘우 의원

1. 제정 이유

- 임진왜란 시 경상도의 연합의병인 창의정용군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및 호국 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임진왜란 기간 중 영천성 수복 전투 등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순국한 경상도 연합의병을 창의정용군이라 정의함
- 창의정용군의 역사·문화유산 복원, 창의정용군의 나라 사랑 및 호국 희생 정신의 재조명, 창의정용군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가치 교육·홍보 등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10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춘우 의원

1. 제정 이유

- 말산업을 향후 경상북도 농축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마사회 영천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될 레저세의 5%를 재원으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조성, 말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말산업육성기금의 용도를 정함

11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김준열 의원

1. 개정 이유

-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 기준을 간단명료하게 규정하고, 독도거주 민간인 세대당 생계비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 기준을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규정함
- 독도거주 민간인 월 생계비 지원기준 9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지원금 30만원을 50만원으로 상향 규정함

12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남용대 의원

1. 개정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어 등을 수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시간계화시설의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세부시설 면적 50% 미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 50% 미만으로 규정함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용적률·건축 제한 등 완화에 따라 기부채납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공공 임대주택, 기숙사로 규정함

13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김상헌 의원

1. 개정 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용소방대 명칭 제정, 의용소방대 해산·활동 정지,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기 및 표지 근거를 마련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대장 및 부대장 임명 후 2년 이내 교육이수도록 강화하고 활동이 우수한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성과 중심의 보상근거를 마련함

14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박승직 의원

1. 개정 이유

- 장학생의 자격, 선발, 장학생의 정원 등 2012. 12. 조례 개정 이후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여 우리도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교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로 명확히 함
- 장학생의 자격을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 중 대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단순화 함
-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고등학생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수업료 연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금액 기준 근거를 객관화 함

15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조현일 의원

1. 제정 이유

- 경상북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00만 도민을 짊어지다 장경식 의장의 봄



장경식 의원 경상북도의회 의장/포항/미래통합당

장경식 의장은 포항을 지역구로 2006년 처음 도의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지역민의 꾸준한 지지에 힘입어 어느새 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까지 맡게 되었다. 이례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북도의회도 큰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경북도민의 간절한 바람을 짊어진 장경식 의장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맞은 경북. 포항의료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장경식 의장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지원 물품과 함께 포항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마음도 타들어 가고 있는 상황. 장경식 의장은 직접 민생현장을 방문해 도민들을 위로하고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도민들의 응원에 되려 힘을 받았다고 …….



장경식 의장은 포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사급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은 아름답다. 경북도의회는 중국 라오닝성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는 우호 물품을 전달받았다.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도민 모두가 웃음을 되찾길 바란다. 

교육은 백년대계 곽경호 위원장의 열정



곽경호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철곡/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소속 곽경호 위원장은 철곡 토박이 출신으로 남다른 애향심으로 뭉쳐 있다. 젊은 시절부터 패기와 성실함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었으며, 평소 교육 부문의 특별한 관심으로 10대 도의원 때부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교육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평소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여건을 중요시하는 곽경호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에 사소한 문제란 없다는 신념으로 현장을 보고 대안을 함께 고민한다. 이남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를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다.



최근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도 앓을 먹고 있다. 곽경호 위원장은 공교육의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탄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등으로 도민들이 경북 교육의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곽경호 위원장은 평소에도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유명인데, 지난 명절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 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곽경호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으로 교육위의 전체적인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경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와 「학생안전 및 건강을 위한 조례」 역시 교육에 대한 그의 열의가 반영된 것들이다. 📺

의회의 젊은 피 김상헌 의원의 활약



김상헌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포항/더불어민주당

의회 내에서 젊은 피로 꼽히는 김상헌 의원, 그만큼 지역문제들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남들이 꺼리는 일도 서슴없이 추진할 수 있는 패기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예전부터 꿈꾸던 정치에 관한 열망을 이룰 수 있어서 뿌듯하다는 김상헌 의원. 건설소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늘도 경북과 지역을 위해 애쓰고 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본다.



김상헌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의 조속한 건립을 독려하고자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환동해지역본부를 찾았다.



도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도 의원들이 할 일이다. 김상헌 의원은 의회소식지 편찬 자문회의를 다녀오면서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의원으로서 젊은 편인 김상헌 의원은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한다. 끊임없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따금 자신을 가다듬고 휴식할 시간도 필요한 법. 시간이 날 때면 종종 명상으로 생각을 정리하곤 한다.



최근 3월 임시회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제도를 도민 전체에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정책의 실행여부를 떠나,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이 제안에 공감한다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자산을 선택해 준 주민들의 인정을 받는 것만큼 뿌듯한 순간이 있을까? 🍷

경북을 품은 도기욱 의원의 바람



도기욱 의원 기획경제위원회/예천/미래통합당

도기욱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장 오래된 경력을 가진 의원이다. 능숙한 경험을 살려서 초선 의원과 다선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기획경제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나 현장방문, 예산심의 등 다양한 업무를 보면서 경북 발전에 힘쓰고 있다.



배움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도기욱 의원. 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지방자치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지방의회가 더욱 성숙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지방자치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이유이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 도기욱 의원이 의회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BEST 경북도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도기욱 의원은 "더욱 책임감을 느끼라고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라며 굳은 다짐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북의 많은 의료진이 피로가 쌓여가고 있다. 도기욱 의원은 직접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그들을 격려했다. 또한, 장기전이 될 듯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끈기 있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임위 외에 정책연구위원회에도 소속되어 도민을 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쁜 일정이 오히려 부듯하다고 말한다. 최근 「경상북도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저소득층 주민이 지방세 처분에 억울함이 들지 않도록, 전문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뺏속까지 농민 이수경 위원장의 풍요로운 일상



이수경 의원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성주/미래통합당



이수경 의원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을 뺏속까지 농민이라고 말하며,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하는 그는 농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수산위원회는 경북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여해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한편,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각오를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농민대표로서,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연과 체육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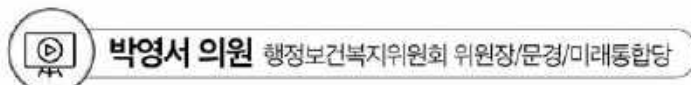


이 위원장은 선도적인 농업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는 등 농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14회 임시회 시 '공익작물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채택했다. 그 핵심은 부채지주가 농민 대우를 받는 불합리함을 드러내고, 진짜 농민이 농민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전하게 농사짓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 박영서 위원장의 웃음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박영서 위원장의 오랜 지론이다. 지역에 봉사하는 도의원, 공무원들이 보람과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그들이 책임져야 할 도민들도 자연스럽게 행복에서 멀어진다. 그렇기에 박영서 위원장은 의무와 행복의 조화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박영서 위원장이 속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공동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방안'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영서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박영서 위원장은 소외된 도민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함께 '원폭피해 기록특별 사진전'을 열어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응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관련 지원 사례를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팎으로 바쁜 박영서 위원장이지만 그럼에도 경북과 지역을 위해 일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조례안을 발의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 일, 교육청과 함께 난치병 어린이들을 도와준 일, 문경시의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 모두 박 위원장의 노력과 보람의 결실이다.



박영서 위원장을 필두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를 열어 경북도가 당면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시급한 해결방안과 복지정책을 논의했다. 이날은 다양한 생활지원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기록으로 역사를 묻다

지방의회 아카이브



慶尙北道議會

4285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헌헌법 제8장 제97조 규정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헌법기관으로 출발했다. 지방의회의 어제와 오늘을 4차례에 나누어 기록하며, 그 안에서 경상북도 의회의 내일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과거와 미래가 맞닿아 나누는 대화는 역사가 된다.



影幀紀念

15(1952. 9. 15)



선거 유세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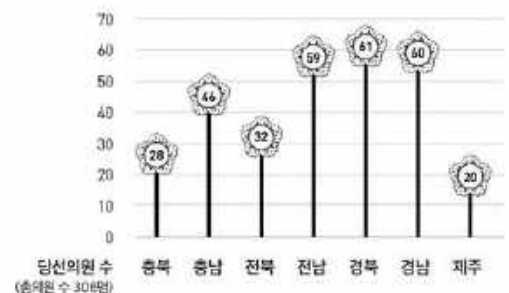
상호방직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미국 CAC 원조단과 함께 기념촬영

전쟁의 혼란 속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 제1대 지방의회(1952년~1956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등 우여곡절로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계속 연기되었다. 일반 국민의 선거를 통한 최초의 민선 지방의회가 구성된 1952년 4월(시·읍·면의회)과 5월(도의회)은 전쟁의 포화가 채 끝나기 전, 정부가 임시수도 부산으로 피난 중인 때였다.

1952년 4월 25일, 한강 이북의 미수복지구와 지리산 주변의 치안이 불안한 일부 지역이 유예 또는 제외된 17개 시, 72개 읍, 1,308개 면에서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됐다. 5월 10일 도의회 선거 또한 미수복지역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라북도 남원·완주·순창 및 정읍의 4개 군은 치안 관계로 선거를 연기하여 7개 도에서만 실시됐다. 선거인 총수 6,358,383명 중 81%에 해당하는 5,165,226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입후보자 824명 중 306명을 선출했다.

경상북도는 1952년 5월 10일 초대 도의원 선거가 열려 28개 선거구에서 61명이 당선되어 1952년 5월 20일 초대 도의회가 개원했다.





제2대 경북도의회 의원들(1958. 2. 2)

시·읍·면장을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 제2대 지방의회(1956~1960년)

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의 조정을 거친 후 제2대 의회 선거가 1956년 8월 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8월 13일 도의회 의원선거로 실시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간선제로 선출하던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개정해 선출한 것이다. 25개 시, 75개 읍, 1,358개 면에서 실시된 선거의 투표율은 읍·면 단위의 통계는 없고, 서울특별시 75%, 도가 86.6%, 시가 79.5%였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제1회 지방선거에서 제외되었던 서울·경기·강원이 포함된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전국 선거구 438구 가운데 경기도 용진군은 비상사태로 선거가 연기되었고, 강원도 7개 군(철원·금화·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은 수복지역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하여 처음부터 선거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경상북도는 1956년 8월 13일 제2대 도의원 선거에서 28개 선거구 61명이 당선되어 1956년 8월 24일 제2대 도의회가 개원했다.



율진 백암문전에서





경상북도 초대 도교육위원회 제1회 회의 기념사진



문경 이화정, 이승만 대통령 경상북도 방문을 맞이하며

1950년대의 도청사 전경(대구시 중앙공원 내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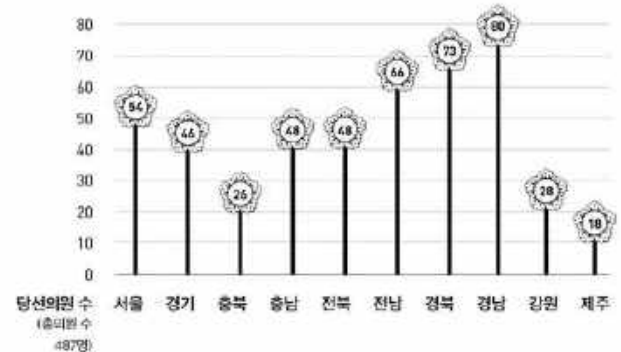




상주여중 도장감사를 마치고

선거하는 해 1960년, 그리고 이듬해 5월 16일 제3대 지방의회(1960~1961년)

제3대 지방의회는 4·19혁명 이후 사회 전반에 민주화의 열의가 팽배해 있을 때 구성되었다. 지방자치법도 종래의 관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민주적인 요소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도지사·시·읍·면장은 물론 동·리장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개정되어 실시됐다. 196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 12월 19일에 시·읍·면 의회 선거를 치르고, 장의 선거도 12월 26일과 29일에 바로 실시했다. 같은 해 치러진 7월 29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생각하면 1960년은 가히 선거의 해라 부를 만하다.



김천시 금릉군 지도감사를 마치고 김천직지사에서(1961. 1. 11.)

전국 487개 선거구에서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거인 11,263,445명 중 67.4%에 해당하는 7,595,752명이 투표하였다. 이것은 제2대 의회의 86%에 비하여 18.6%나 낮은 것이다. 인구수 대 선거인 비율은 53.4%로 제1대 의회의 43%, 제2대 의회의 44%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만큼 선거권이 확대 또는 신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상북도는 1960년 12월 12일 제3대 도의원 선거에서 28개 선거구 73명이 당선되어 1960년 12월 20일 제3대 도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문 제4호에 의해 해산되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지켜주고, 아껴주세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 텔레그램 앱을 이용한 성 착취 사건을 말하는데요. 위 N번방을 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등 잔인한 행각을 저질러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아동·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간음, 살인, 치사, 성매매 행위, 강요 행위, 알선 영업 행위 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 밖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희롱 등의 행위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것도 성폭력>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
- 몸의 중요 부위, 성기, 가슴, 엉덩이 등 부위를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비비는 행위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라도 상대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다고 느끼는 것
- 원하지 않는데 자기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
-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신체 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이나 놀리는 것
-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특히,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라도 어린이나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 보여주는 것도 포함

- 어린이의 경우 스스로 동의했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

<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 증거수집을 위해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이나 산부인과로 가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해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해요
-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 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해요

• 신고 방법

경찰청 ☎ 112

검찰청 ☎ 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https://www.women1366.kr/_sub03/sub03_02c.html)

코로나19 경북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갑시다

갑작스럽게 우리 생활을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 특히나 대구-경북 지역은 그 타격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슬한 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은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과 경북이 기울여 온 노력을 알아봅니다.

* 코로나19란 무엇인가?

코로나19의 원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일컫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더욱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는 아직 명확한 백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행동요령]

☑️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쓰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서 주로 감염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비말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마스크는 타인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주세요.



두 번째로 '손 소독하기'입니다. 깨끗한 손을 유지하는 것은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기본이 되는 예방법입니다. 특히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한 질병일수록 손을 소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코로나19는 약 2주간의 잠복 기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나온 캠페인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와 모임 참가를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최대한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을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꽤 시간이 흐르자 통제에 잘 따라주던 사람들도 조금씩 지쳐서 다시금 외부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

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국민 모두 경각심을 유지한 채 최대한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경북이 기울인 노력



경북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임시병동 추가,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 사태이니만큼 경북의 원과 도민을 포함한 전국의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다른 그림 찾으며 경북도의회 자세히 보기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곳)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주세요.

또는, 독자엽서에 표시해 우편 응모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6월 15일까지 참여해주신 분 중 열 분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우편으로 참여하신다면 보내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사진응모 연락처 ☎ 010.8565.6842



[의회 회의실]

의정안내

• 본회의 방청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유선상으로 방청신청 후 방청인원 안에서 방청가능
T. 054-880-5126
- 상세안내 의회 홈페이지 방청안내 참조
(council.gb.go.kr/cms/tour)

• 의회견학

- 도내 학생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초,중,고,대학생에게 의회견학 안내 / 견학신청은 유선상으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견학일 7일 전까지 신청
T. 054-880-5126

• 의회 소식지 신청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접속 후 의회소식지 신청
홈페이지 - 구독신청(council.gb.go.kr)
※ 구독 취소 시 경상북도의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연락(054-880-5144)

• SNS 의회 알림

- 페이스북
경상북도의회(www.facebook.com/gbcouncil)





경상북도의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5126 Fax. 054-880-5129

<http://council.gb.go.kr/>